

AUTHOR 손두환 (Doo Whan Sohn)

TITLE 측면에서 본 칼빈  
(John Calvin as a Man)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48 no.1 (March, 1980):68-88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주신이가 하나님이요, 믿음 자체도 선물(엡 2:8)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병을 고치시지만 때로는 자연 치료를 통해 고치시기도 하신다. 히스기야가 무화과로 약을 만들어 바를 때 병이 낫게 되었다(왕하 20:1-7). 의사의 치료와 약품의 복용으로 병을 고침 받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미국의 오랄 로버트(Oral Roberts)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오직 이적을 통한 치병만 강조하던 그의 입장을 바꾸어 오늘에와서 그의 종합대학 구내에 의과대학을 건립하여 이적치료와 자연치료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강조하고 있는 일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일부 오순절계 일부 교회에서 병원출입을 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연은총을 부인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잘못이다. 동시에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를 부인하고 병원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이다. (\*) <계속>

## 側面에서 본 칼빈

孫 斗 煥

<교수·교회사>

John Calvin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 본 사람들은 아무도 Calvin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최소한의 시간을 내서 그의 학문과 사역을 연구하는 것이 편견을 면하게 되어 좋을 것이다. 진실한 학자들 중에는 그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칼빈이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학문적으로도 공헌이 큰 분이었다고 존경하기 때문이다.

과거 약 400년간 종교 개혁자들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엄중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중에서도 칼빈만큼 호되게 비판된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sup>

종교개혁자 Luther는 호렬적이며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그의 論敵인 도전자 까지도 호감을 표시했었고<sup>2)</sup> Zwingli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바 크다. 그의 애국정신과 용감한 투사로 존경받는데 반하여 위대한 개혁자 Calvin만은 많은 論敵들로부터 중상을 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의 후계자들에게 까지도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 받은적도 없지 않았다.<sup>3)</sup>

1) Peter Vogelsanger이 칼빈탄생 450주년 기념의 1959년에 발표된 칼빈에 관한 논문 제목 "비난의 대상이된 인물 칼빈".

2) 천주교 진영의 Luther 연구에서도 큰 호감으로 발전해갔다. *Luther vu Par Les Catholiques, Neuchâtel et Paris, 1962.*

3) Emile Doumergue가 지각한 데로 Calvin에 대한 反感 또는 憎惡는 개인

## I. 비판의 對象이 된 Calvin

1562년 발표된 Calvin 증상문서인 Francois Baudoin의 두 글은 종교 개혁자 Calvin에 대하여 두 책의 비판은 너무도 일방적이며 악평의 글이었다. 한 예를 들면 비겁자, 사람의 심정이 없는자, 전제주의자라는 등의 부당한 악평들을 수록했다. Calvin이 세상을 떠나고 13년이 지나면서 비약적으로 비난이 증대되었다. “제네바에서 마음대로 행동한 목사 Calvin의 생애, 성품, 행위, 가르침, 강신장, 죽음”에 대해 몇대로 비평했었다. 복음주의적 사상으로 개종했던 카멜단 소속이었던 전수도사 Jerome Bolsec은 다시 변절하고 로마천주교회로 다시 돌아가 1577년에 “종교개혁자의 傳記”를 출판 했는데 비열한 욕설로 가득찬 책이었다. 그 책에서 Calvin을 악평하기를 그는 야심가요, 망상가요, 교만자요, 잔인한 사람이요, 마음이 악하고 집념이 강하며 금전욕이 강한자며, 죽은자를 소생 시킨다고 말만하는 사기꾼이며, 좋은 음식만 탐식하는 자, 부도덕한 자며 방탕자며 남색가로 유명하며 하나님께 버린 바 된자라고 상석 이하의 악평으로 일관한 책자로 로마천주교를 오히려 욕되게한 부끄러운 욕설 뿐이었다. 변절자의 요망스럽고 아부하는 행동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공감도 못받고 불신앙적이며, 비신자적인 발자취만 역사에 남겼다.

그 이후 Bolsec 이상으로 교묘하고 야비하게 Calvin을 증상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사십년쯤 하여 발표한 루만교구의 총주교 대리 Jacque Desme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향으로 Calvin의 성격묘사를 특수하게 취급했다.

“Calvin의 생애에 관한 연구”란 책에서는 Calvin을 장기간의 먼여행의 비용을 마련키 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은으로 만든 聖杯를 훔친 도적이라고 악평했다.” 그 책에서 개혁자 칼빈을 Bolsec 보다는 조금은 인도적으로 묘사했을 뿐이었다. 종교개혁자 Calvin은 貪食家, 美食家, 山海珍味와 고급肉食을 좋아하는 자, 宗教를 創設한 者라고 평하여 종교개혁 운동 전체는 酒宴과 歌舞 호화만찬으로 向進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도 天主敎와 함께 한다. “칼빈의 性格” 1921, p.45.

4) *Remarques Sur La vie de Jean Calvin, tirees des registres de Noyon, ville de sa naissance Roueu* 1621.

5) Cimber et F. Danjou, *op. cit.*, Ire Sévic, Vol.5 Paris 1835.

이같은 증상은 너무도 조잡하므로 초기의 목적 달성을 뜻했을 뿐더러 오히려 유력한 반박론이 나와 칼빈을 변호 했었다.<sup>6)</sup>

로마 天主敎側의 사람들 중에도 칼빈에 대하여 진실하게 연구하고 살피는 자들이” 있었다. Jacques Le Vasseur의 “Noyon 교회의 歷史”(1633)와 Papire masson의 “찬사” *Elogia Pars Secunda*가 Paris에서 1638년에 出刊되어 주목을 끌었다. 불란서 개혁파 교회 목사 Drelincourt는 Calvin을 변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불란서 교회의 종교개혁은 Calvin 주의로 진행되어야 할 사명을 제시하였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란서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개혁의 불길에 교회 안에서 불타고 있으며 이 불꽃 가운데서 칼빈을 찬양한다고 했다. 그러나 칼빈을 주님으로 생각하거나 개신교의 창시자라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불란서 교회의 신앙은 칼빈이 출생하기 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칼빈의 가르침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할 때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 들인다고 선언했다.<sup>8)</sup>

그 이후 부터는 Calvin을 미워하는 원수들의 야비한 비난은 오히려 손해인 것을 깨닫고 한층 더 정밀하게 연구하여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1688년 출판한 Bossuet의 “Protestant 교회의 변동사”에서 Bolsec의 욕설이나 그와 동류들이 출판한 조잡한 증상하는 방법을 물리치고 종교개혁자 정신의 통찰력, 대담한 결단, 교리의 정확성, 근엄과 솔직한 점을 인정하고 Bossuet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요약하여 비난의 초점을 삼았다.

Calvin은 거대한 극장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넓은 구라파주에 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는 대야심가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Calvin은 모든 이단적 반항자들을 훈련양성하여 반항자들의 대 당파의 두목의 자리에 앉아 권위자로, 맛이 있어 보이는 낚시밥을 뿌리는 자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Calvin은 누구보다도 무서운 전제군주더

6) André Riret. *Tesuita vaputans* (1635) Pierre Du Molin *Hyperaspistes*, Genève 1636.

7) Jacques Laingey의 “로마교에서 본 Calvin Paris 1581. Florimond de Raemond의 *La naissance, Progrès et decadence de L'héresie de ce siecle* Paris, 1605.

8) *Défeuse de Calvin Contre L'outrage fait a sa memoive*, Genève 1667 p. 56-57.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을 뿌리깊이 증오하며 엄벌하는 지극히 음흉하고 사나운 정신의 소유자라고 악명 저술하였다. 이상 부당하고 지나친 nuance로 꾸며 본 Bossuet의 Calvin성격묘사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불란서 천주교도들에게 보급시킨 Calvin 전기는 Audin의 1841년 저서로서 "Calvin의生涯와 가르침"이란 책이었다. 이 책에서 Calvin을 평하기를 冷心者, 사기꾼, 자기중심주의자<sup>9)</sup>라고 비난했다. Audin은 Calvin 선생을 다음과 같이 부언했다. Calvin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Calvin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를 두려워했을 뿐 그에게 매력을 느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Calvin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에게서 모두 떠나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의 오만 불손한 태도와 강한 말로 격노 할 뿐이었으니 친구도 없고 제자들도 외면하는 참을 수 없는 위인이라고 편견과 악명으로 일관했다. Audin은 종교 개혁자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자유 때문에 Geneva로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욕설로 비난했다. 오랫동안 순수하게 지켜온 Geneva에 Calvin의 친위대인 모든 나라의 망명자들의 冷血이 혼합되었다. 사기꾼, 대식가, 파산자들이 Geneva市議會 상좌를 차지하고 모든 행정을 전제주의로 운영하여 큰 오점을 남겼다고 꼬집어 악명을 한 것은 천주교도의 지나친 증오심에서 온 편견일 뿐이었다. 19세기에 Audin의 것과 같은 저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저서들은 이 시대에 Calvin의 전기에 관심을 가지는 당시 Protestant들이 Calvin을 존경하고 연구하고 따르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1872년까지 Bonn대학 교수로 있었던 天主教派 Kampschulte<sup>10)</sup>은 Calvin思想의 源流에 관한 연구에서 깊은 지식과 확고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 고로 크게 기대할만 했었는데 Kampschulte가 Calvin에 관하여 전심 연구한 후 발표한 저서인 1899년도 출판된 책 "Johann Calvin의 Geneva 교회와 국가"에서도 천주교의 선입관 때문인지 Geneva의 종교 개혁자의 초상을 충분히 바로 묘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된 일

9) 칼빈은 고향에 돌아와 부모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 p.125

-126. 칼빈은 그의 아들이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 page 306-307.

칼빈은 그의 처가 죽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page 335-336.

10) 제 1회 바티칸 회의에 發布한 교황무오성에 反對한 古로마 천주교의 일파.

이었다. 그는 Calvin을 정당하게 평가할 능력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천주교적 선입관을 탈피못한 채 Calvin을 연구했으니 했수고 뿐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지성이 크게 발달한 현대 20세기에 와서는 Calvin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다음의 실례를 보라.

1935년 불란서 역사가 Emile G. Léonard는 "Calvin과 기독교강요"라는 책에서 Calvin의 학문적 재능은 인정하면서도 "위대한 이단자"라고 논평하였다. 그는 두 사람의 개혁자 Calvin과 Loyola를 비교 논술하면서 Loyola는 진실하고 불붙는 천도자요 개혁자라고 칭찬하고 Calvin은奸狡한 파괴자라고 했으니 은근히 야유 증상하는 표현이었다. Calvin을 악평하는 자들의 편견을 총정리하면 파괴자, 예리한 정신의 소유자, 배신자, 격정적인 사람, 人情味가 없는 사람, 냉혹한 감정의 사람, 불안과 번민을 사람, 증홀과 잔혹의 사람, 교만한 사람, 병약자, 감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독재 전제적인 사람, 피상적 신학자, 편견의 성경주석자, 성경보다도 법률의 신봉자, 不信仰生活者, 기도할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 이상 20가지 별명을 가진 Calvin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복음서에 나타난 별명은 세어보면 36가지 별명을 찾을 수 있다. 마태 1:23의 '임마누엘이'란 창호부터 시작하여 요 18:30 '행악자'라는 별명까지 무려 36종의 별명을 상기할 때 Calvin은 과연 예수님 닮은 제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Calvin의 부당한 20가지 별稱이 Calvin을 위대하게 만드는 편견자들의 蛇足임이 분명하다.

이상과 같은 Calvin의 論敵들의 논지를 살펴 보았지만 그것들은 Calvin을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온 편견적인 욕설일뿐 학문적 가치는 인정할 수 없다.

19세기의 자유주의적 환경에 있어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이상한 평가를 다음 저서에서 엿볼 수 있다.

Théodore de Bèze의 저서 "존 칼빈의 生涯"(1869년)에서는 천주교의 대변자 처럼 Calvin을 악평했다.

갈격을 모르는 엄격주의자,

다음에 인정미 없는 냉혹자,

누구도, 아무것도 그를 감동시킬작 없고 그는 저들까지 웃어 보일적

이 없는자,

웃음이 없고 눈물도 없는 사람

이라고 함은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논명이다. 이같은 논명으로 어찌 Calvin의 높은 지성과 그의 투철한 신앙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우거일 뿐이다.

제네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수였던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라 많은 Protestant측으로 부터도 냉담한 대우를 받았으며 양쪽의 사람들이 괴물처럼 미워한 것이 사실이다.

1564년 5월 27일 세상을 떠난 Calvin은 참으로 악명할 인물인가?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Antihumain이나? Inhumain이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평이냐? 비인간적인 평이냐? 두개의 형용사로 요약할 수 있다. 판단을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고 Calvin의 남긴 편지를 통해서 그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 II. 友情, 愛情, 父情이 넘치는 사람 Calvin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결혼하고 싶은 교직자들이 꾸민 연극이라고 했고 종교개혁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천주교측 공격에 대하여 Calvin은 다음과 같이 논술했다. 지극히 성실히 대답하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교에서 건져(救出)내신 이래 나는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았다. Calvin의 결혼생활은 31세때였다. 그는 청년 시절에 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신조로 한 일은 없었으며 독신생활을 강권하는 주장에도 반대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에 대하여 문의하는 편지를 받고 창조의 원리에서 본 결혼의 합법성을 설명하여 답장을 보낸 일이 있었다(1536년). Calv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독신 생활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읍니다.”<sup>11)</sup> 그리고 언제 결혼할지, 아니할지 미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내를 맞이한다면 많은 일들을 처에게 넘기고 작은 일상의 일들에서 해방되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지요.” 결혼 생활은 창조 원리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독신 생활의 강요는 다시 생각해 보아

11) Calvin은 1540년 8월 10일 결혼했다. August Lang 광 1875. 존칼빈의 가정생활 p. 75-77.

야 된다고 지적했다.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담당 수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였다. 로마교 missa를 비성경적이라고 반대하여 일어난 격문사건과 연설문 때문에 조국 불란서에서 망명해온 청년 Humanist, 칼빈은 26세의 청년으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단고의 지성인이며, Geneva교회의 중책을 담당할 목회자요, 건도자며, 조직자이며, 또 그곳 교회에서 추방 당한 목사였던 Calvin, 알날의 일을 생각하여 결혼의 뜻이 그곳에서 싹튼듯하다. 종교 개혁자의 결혼 문제는 1538年 9月 以來 불란서인인 망명자들이 목사의 직무에 충성하면서 성경주석학 교수의 직책을 맡은 스트라스북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당시 두 가지 신앙고백의 대표자들이 연구 토론하기 위하여 회집한 프랑크 프루트회의 기간 중 식사 때면 Philip Melanchthon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Calvin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고 농담을 자주 걸었는데 Melanchthon과 Calvin과의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Calvin을 冷血이라고 평을 하지만 그는 참으로多情한 友情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1538년 11월부터 6個月間은 수입이 없어 곤란했었다. 그때 生活費 조달을 위해서 그의 장서의 일부를 방매한 일도 있었다.<sup>12)</sup> 1539년 3월과 4월에 Farel에게 보낸 Calvin의 두 통의 편지는 友想에 넘치는 편지였다.

‘나는 Vaud派 형제들에게 金貨를 빌려서 당신에게 보내보니 우선 받아주세요. 나머지는 되도록 빨리 보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부터의 우정을 감사드리며 당신의 寬大한 友情에 감사 드립니다. ‘기독교 강요’의 라틴어版이 出版되면 빌려온 돈은 다 변상할 것입니다. ....’ 1539년 5월 19日 종교개혁자 Calvin은 友情의 사람 Farel에게 보낸 편지에서 앞으로 결혼할 妻에게 期待하는 점을 진술했다.

“내가 결혼한다면 妻에게 바라는 점을 기억하지기 바랍니다. 나는 어

12) 1541년 1月 13日 Calvin에게 보낸 편지 Antoine de la Fontaine의 결혼 축하편지 중에 상술되었다.

13) 1539. 3月-4月은 生活費가 떨어져서 Calvin 藏書를 팔았고 1539年 5月 1日부터 市當局으로부터 牧師봉급으로 毎週 金貨를 받기로 決定되다.

면 美貌의 女性에게 매력력을 느껴 그녀의 결점까지 좋아질 연애자는 아니옵니다. 나를 배혹시킬 유일한 美는 貞潔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여 살림 잘하고 나의 건강을 보살피줄 女性이던 좋습니다. 外貌美 보다 內的美가 진정한 女性美입니다……”

友情에 넘치는 Farel이 소개하는 女性은 Calvin이 바라는 특징을 가진 美女이었던지 모르겠으나 1540년 2월 6일 Farel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貴族의 家門의 딸이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 美女에 대하여 두가지 이유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내 母國語를 말할 수 없는 것과 그녀가 받은 교육이 非信仰的인 것입니다. 나는 애정으로 소경이 될 때도 했음이나 단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請婚을 거절하므로 가장 호의적으로 대해 주던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念慮했으며 그는 貴族의 젊은 딸에게 佛語를 말할 수 없는 것이 결혼할 수 없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Calvin은 冷情한 성격의 소유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540년 2월 26일 Farel에게 Calvin은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나의 결혼문제가 결정 단계입니다. 부활절이 지나서 결혼하고자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確實히 오신다고 約束해 주신다면 나의 결혼식은 당신이 오시기까지 延期하겠습니다. 결혼식 날을 다시 알릴 수 있는 時間은 아직 充分하므로 먼저 당신께서 오시겠다는 約束을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對한 最上의 友情이 되겠습니다. 결혼을 축복하기 爲해서는 누구보다도 당신만을 꼭오시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스트라스북의 佛人교회 牧師 Calvin의 결혼이 진행되고 있었다. 1540년 3월 29일짜 기록에 보면, “가난하지만 덕망이 높은 그녀의 청혼은 Calvin 自身을 고민하게 했었다. 주님께서 내 理性을 빼앗아버리면 몰라도 나는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나에게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구출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고민 중 1540년 6월 21일 Calvin은 Farel에게 결혼을 中止한다고 알려왔다. 적합한 女性을 찾지까지는 결혼을 논하지 않겠다고, 누구든지 결혼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떤 방황을 경험하게 된다. Calvin도 결혼하려고 할 때 理想에 맞는 女性을 발견하는 수고를 친구에게 위임하려고 했다.

그 태도를 이해하려면 종교개혁 당시 개혁 지도자들의 애정에 관하여 情熱的인 태도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여야 된다.

Calvin이 결정을 내린것도 16세기적인 것이다. Farel은 Calvin의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성실하고 청렴한 美人”이라고 評했다. 1540년 8월 10일경 과부 Bure와 결혼했다. 그녀는 개종한 佛人中의 하나며 성실한 여성으로서 Odilette 또는 Idelette de Bure라는 과부였다. Bure는 前男便과 의 두 아이 외에 아무 재산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새 가정은 행복했다.

식구가 너무 많아 하숙집 같았다. Calvin의 동생이 왔고 젊은 佛人 학생 數名과 子女와 下人까지 대동한 貴族夫人이 그의 집에 또 와있었으나 많은 식구로 복잡한 집안일을 만사 圓滑히 處理하였으며 한 집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긴장도 응화시켜야만 했다. Calvin은 이같은 일로 진력하다가 건강의 희생까지 당했다. 그의 가정에는 새 생명이 선물로 탄생되었으나 일찍 죽음으로 애석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함께 평온한 가정 유지에 힘써서 평화롭게 살아갔다. 그는 최약한 그녀를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다정한 남편이었으며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이 없었다.

1541년 2월말 Calvin의 새가정에 큰 시련이 왔다. 市營局으로부터 케렌트부르크 회의에 파견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떠나간 후 스트라스북에는 페스트 전염병이 돌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되고 Calvin집 가족들도 죽었으나 Bure는 친척집으로 피난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이런 재난의 소식으로 Calvin은 안절부절 하였다. 그는 冷情한 사람은 아니었다. 友情도 뜨겁고 애정도 큰 사람이었다. Calvin은 Farel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살아 남은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온다. 남편에게서 떨어져 있는 妻子는 누가 도움을 줄까. 도움도 되지 못하는 안부가 밤이나 낮이나 마음에 걸린다. 주님께 기도드릴 뿐이다.”

1541년 4.2. 그 회의가 끝난 후 1541년 6월 말 스트라스북에 돌아와 Bure와 再會와 기쁨은 대단하였다.

더욱 다행 하게된 것은 Geneva로 개선 개혁지도자로, 신학자로, 목회자로 再就任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에 헌신하게 되었다.

Calvin의 가정은 Geneva로 이사는 후 公務에 너무 분주하였음인지 별

로 불거지는 일이 없었다. 조용히 행복하게 지내는 生活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친구들에게도 가정문제에 관하여 편지를 보낸 일이 없기 때문에 재료가 없다.

그런 중 한가지가 언급되었다. Bure는 집안 지키는 伴侶者는 아니었다. 남편을 위해서 참된 협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ure는 임신 중이었지만 병으로 빈사 상태에 쓰러져 있는 Geneva 市長 Boraru를 찾아가 보살펴주는 봉사까지 하였다. 그녀는 시장에게 생에 관한 勇氣를 주었으며 복음선교적 봉사를 힘쓴 것이다.<sup>14)</sup> 죽음의 문 앞에서 헤매는 사람에게 신앙의 위로를 주며 봉사했다. 수일 후에 Bure는 男兒를 출산했다. 1542년 7월 28일 Calvin의 日記에 다음과 같이 써 있다.

“나는 妻의 위험한 진통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불안하여 기도 드릴뿐 걱정이 되었으나 妻는 순산한 편이다. 매우 위험하였지만 위기를 면하여 주셨다. 특별히 그녀의 출산은 만삭못된 조산이었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 덕분에 무사하였다.”<sup>15)</sup>

Calvin은 아들 이름을 Jacque라고 불렀다.<sup>16)</sup> 그 男兒는 살지못했고 父母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주었던 것이다. Calvin이 Bure에게 쓴 편지에 보면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단가를 상상할 수 있다. “사랑하는 子息의 죽음에서 큰 고통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선을 이루시겠지요.”<sup>17)</sup> 고통은 신앙에 의하여 소화된다고 하는 그의 말은 子孫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비난한데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Calvin은 삼남매를 낳았으나 하나만 살았다고 한다. Calvin은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스러운 子女들을 주시고 찾아가셨다”고 하였으며 그를 비난하는자들에게 반박하기를 “기독교 신앙에 의하여 수만명의 자녀들을 내게 주셨다”고 선언했다.<sup>18)</sup>

Bure는 자리에 누어 있었다. 무엇인가 마음에 부담을 느껴 1545년 부터는 환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건강한 여성이 될 때까지, 남편의 편지를 통해 병상이 회복되어 가도록 격려를 받았다. 回復은

소강상태였지만 Bure는 좀처럼 건강이 회복되지 못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Calvin은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 했다. 그는 Bure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나의 소원보다는 무엇인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소.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뿐입니다.”

다음해인 1548년 여름에는 조금 회복되었다. 병약한 그녀는 그때를 이용하여 로잔느에 갔다. 그녀는 해산의 수고로 몸이 약해진 자신이 가정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피롭게 할뿐 아무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갔던 것이다. 그녀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싶지만 그녀의 실제적인 행위는 뜻과 같지 못했다. Calvin은 그녀의 그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Bure를 이해하며 그녀를 사랑으로 싸매며 변호해 주는 훌륭한 남편이었다.

“나의 妻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딱하도록 연약하지요. 그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의 생각은 Bure는 産婆의 도움이 필요했읍니다만, 그녀 자신이 모든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손해를 초래하였읍니다. 건강치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愛護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sup>19)</sup>

그후에도 계속 病弱 상태였다. 그 상태가 중태임을 알게된 Calvin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들보아 주실 것으로 믿읍니다”였다.<sup>20)</sup> 이렇듯 최후의 소망이었는데 1549년 3월 10일 칼빈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男便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은채 회담도 못하고 1549년 3월 29일 그녀는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다. Calvin은 그녀의 최후를 지켜보고 그녀의 전 남편의 자식을, 사랑하는 친아버지로 돌봐주겠다고 約束하고 그대로 돌봐주었다. 그런 Calvin을 어찌 冷血族이라고 악평할 수 있겠는가?

Calvin은 Bure의 殞命 전에 그녀에게 男便으로서 사랑을 다했으며, 또는 목회자로 그녀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과 영생의 축복이 있음으로

19) 1548년 6월頃 수기.

20) 1549년 1월 21일자 Bure에게 보낸 편지에서.

14) 1542년 6월 16일자 편지 Herminjard, p. 56, VII.

15) Herminjard, p. 82--83 VII.

16) 1547년 8월 21일자 Farel에 보낸 편지.

17) 1542년 8월 19일자 편지 Herminjard p. 109, VII.

18) Balduin이 1562 Opuscules에서 증명한 對한 國文.

이 세상의 生命은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의 희망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고 성경 진리를 가르쳐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운명하는 그녀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드렸으며 그녀는 Calvin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Bure가 남기고 간 手記는 Calvin이 정성을 다해 돌봤는데 늘 걱정하게 되는 爲人이었다. 1545年 8月 31日과 1546年 1月 21日 써보낸 두 통의 편지는 Hubert에게 보낸 것인데 Bure가 남겨두고 간 자식에 관하여 염려하는 내용이였다. Calvin은 Bure의 죽음을 잊지못하여 그녀의 信仰的, 道德的 '죽음에'<sup>21)</sup> 대하여 마음 깊이 애도하며 自身이 個人的으로 決코 말하지 않았다고 決心하고 있는데도 自身의 감정을 어찌할 수 없다고 失意를 감추지 못하였다. 상처한 Calvin은 매우 큰 타격이었다. Farel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하기를,

“나의 슬픔으로 달미않아 일에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대로 努力하고 있습니다만 타격이 큼니다. 나의 주위 친구들이 위로해 주며 나의 심령의 슬픔을 감해주려고 마음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우정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職務를 中斷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 가면서 슬픔을 잊고 충실코자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듯이 이 Calvin까지 강하게 하소서. 이 큰 불행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여 주소서. 이 喪妻한 不幸은 확실히 나에게 큰 傷處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넘어진者を 일으키시며 약한者를 강하게 하시며 피곤한 者에게 세 힘을 주시는 은혜가 내게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슬픔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不幸은 분명히 나를 좌절<sup>22)</sup> 시켰을 것”이라고 告白하였다.

또 Calvin은 “妻의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이 이상 더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이지만 나는 할 수 있는대로 고통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가까운 친지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친구들도 친구로서의 의무를 잘 다루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내가 바라고 있는

21) 예컨대 Calvin이 Farel에게 편지 쓸 때마다 Bure의 인사문안을 전했다. 1545-1549년까지 佛語로 쓴 편지로서 만도 30通 이상이 Bure의 문답이 전해졌었다.

22) Augustu Lanq에게 보낸 Calvin 1549年 4月 21日의 편지에서.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위로 받고 있는 것이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나의 심령의 부드럽고 약한 것을 아시겠지요. 확실히 나의 고뇌의 原因은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령 不幸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추방하려고 하였으며 死境을 헤매 일때도 自進해서 좋은 伴侶가 되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Calvin은 남다른 生의 伴侶를 잃었다.”<sup>23)</sup>고 하였다.

뜨거운 애제가 Calvin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Bure를 決코 잊지 못하고 그녀가 죽은지 삼개월 후에 그는 Buchea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진술했었다. “나는 半身으로 살아 남아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님께서 나의 苦痛 불러 가셨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1549年 6月 28日자 편지다. 그후 일년도 되지못해 그는 메살로니가 후서 주해서를 써 그녀(Bure)에게 헌신적인 治療의 수고를 해 주었던 醫師에게 “세상 떠난 妻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고마운 치료의 덕분으로 몇번이나 고통이 경감되어 회복의 희망도 주었던 것 감사드리며 가능한 모든 최선을 다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라고 獻詞를 지어 바쳤다.

Calvin은 그렇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지로 격려하는 우정을 표시하였다. 날짜는 未確認 되지만 喪妻로 고통 받는 Richard Vauville씨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홀륭하신 부인이 먼저 가셨구려 당신의 잔혹한 傷處의 고통을 나는 경험하여 보았습니다. 슬픔을 이기세요. 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일어나세요……”

이상에서 종교개혁자 Calvin의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침착하고 지성적이지만 하다고 보이던 Calvin도 걱정으로만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애정에 깊고 부드러우며 처 자식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는 人間味를 살피보았다. 피상적이며 傳說的으로 만들어진 Calvin을 冷酷한 怪物로 비방만 하기보다는 다감한 그 人品을 가까이 하고 경원하지 말자. 연약한 여인 Bure의 남편이며 Jacque의 부친이며 목자란 그는 증상과 선전으로 퍼뜨려 없는 惡漢으로 오인한 자 많으나 악한과는 전혀 共通點이 없는 Calvin이다.

23) 1549年 4月 7日자 Farel에게 보낸 편지에서.



### Ⅲ. 意欲的인 熱情의 일꾼인 Calvin

Calvin은 1534년 어느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깊은 悔改를 경험한 것이었다. 그는 그의 conversion은 그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는 시편주석에서 “내가 아직 교황권을 두려워하는 미신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어 悔改케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였다. 그의 체험의 요점은 “신께서 성경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다 합과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복종하는것 뿐이다.”라고 그는 힘있게 증거했다. 그는 悔改 후 그의 최상의 관심은 종교문제였다. 그는 로마 천주교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하게 싹트고 있었다. 그는 파리의 인문주의 씨클의 회원으로 참석하면서 니콜라스콕과 친교를 굳게 맺었다.

1533년 11월 1일 콕이 파리대학의 학감 취임 연설에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개혁적인 주장하는 말을 引用하여 천주교의 개혁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이 화근이 되어 파리대학 학감으로 취임 연설을 한 콕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신하게 되고 그 연설문의 작성자라는 지명수배로 칼빈도 피신할 수 밖에 없었다. 피난 중에 칼빈은 천주교를 떠나야 하겠다고 굳게 決心하게 되었으며 친구 콕을 위해 박해를 받고 피난민이 된것도 원망보다는 오히려 友誼를 더욱 깊이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실감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는데 정의를 주장하다 박해로 피난 하게 되었으니 콕을 위하여 더 도와주고 싶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진리를 위하여 종교개혁에 헌신하기로 決心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의 골목에 서게 하시고 불들어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중으로 쓰신 것이다.

1534년 5월 4日 고향 Noyon에 잠깐 들러서 로마 천주교가 주는 연금을 사절하고 일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1534년 10월 Antoine Marcourt가 머사는 예배가 아니라는 반박문을 공개한 후 칼빈은 신변의 위협이 심하므로 1535년 신정에 Bazel로 피난길을 떠나 무사히 도착하여 종교개혁의 길로 내진 하게 되었다. 칼빈의 친구 Estienne de la Forge는 피난하지 못하고 붙잡혀서 Marcourt머사 반박문 사건으로 희생자가 되었다. 佛王 프랜시스 1세는 개혁과 박해를 재개하였고 그는

개신교파가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정죄하며 체포령을 내렸다. 칼빈은 천주교적 편견과 애매히 정죄받는 동지 친구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Institutio)를 급히 완성 1536년 3월 출판하여 개혁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친구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호소하는 서문을 부처 佛王에게 보냈다. 친구들을 위하는 최선을 다한 Calvin이었다. 그 뜨거운 우정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높이 평가되어야 할점이다. Calvin의 이 작품은 종교개혁 시대에 학문적 걸작품 중의 첫째되는 것으로 그것은 예절있고 정중하게, 개신교 입장을 옹호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왕과 모든 권세자들에게 종교개혁을 설명한 학문적인 책이며 그때까지 종교개혁을 그렇게 명백하고 유력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었다. 우정에 넘치는 변호자 Calvin은 26세의 젊은 청년으로 일약 프랑스 개신교의 대변자와 지도자가 되었다.

1536년 발행된 친구들을 변호한 책은 그후 증보를 거듭하여 1559년의 방대한 최종판만은 못하지만 종교개혁자가 저술한 교리적, 성경적인 주장과 개신교인을 성경말씀대로 신앙생활의 선한 싸움을 이끌어 주는 조직적으로 설명한 책인 것이다. 칼빈은 성경적이며 조직적인 사람이었다. Calvin의 개혁은 Luther와의 합작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Luther가 개간한 터 위에 Calvin은 조직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린 것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아닐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Luther와 같으며 믿음만이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산 연합이다. 이 믿음은 新生의 의가 되며 구원이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생명 있는 연합이 된 증거이다. 사랑이 선행없이 옳다 하심을 감당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선행으로만 의롭다 인정 받을 수 없다(We are justified not without, and yet not by work). 그러나 로마 천주교가 강조하는 선행을 경시하지 않았다. 선하게 살며 이웃과 친교하며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친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법이다(Law of God). 칼빈은 조용이 친구를 사랑했으며 혼자 있는 우정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Calvin은 ‘기독교강요’ 출판에 협력해준 우정을 못잊어 더그럽고 관대한 친구 동족 Ferrara 公宅을 방문했다. 그때 Renee를 만났다.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복음주의 개혁운동을 위해서 친교를 맺은 것으로 알며 그 우정은 큰 힘이 되었다. 거기서 프랑스로 올라가 가산을 정리해 가지고 동생남매를 데리고 바젤이나 스

트라스북으로 이사하여 개혁운동을 계속할 결심이었다. 전쟁의 위협을 피하여 부득이 Geneva에 들렀다가 Farel을 만나게 되었고 Farel의 성화 같은 강권에 못이겨 그곳에 주저앉았다. Calvin은 우정에 약했다. 친구의 따뜻한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爲人이었으나 그를 冷情한 사람, 피없는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을까? 칼빈은 친구를 사귄 때 연령이나 세대차 같은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Farel은 47세였으며 Calvin은 27세의 청년이었지만 뜻이 같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 生死를 함께 할 친구가 되어진 것이다.

Farel은 1535년 5월 6일 공개토론에서 승리하고 그해 7월 23일에 La madeleine교회를 점령하게 되었고 8월 8일에 St. Pierre 성당을 점령하는데 성공하고 친구들과 매우 기뻐했다. 1536년 5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이기고 “이 신성한 복음주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결의하므로 개혁운동은 완성된 셈이었다. 그동안은 사보이공이 제네바에 큰 壓力을 가했으나 개신교便인 베른이 1536년 1월부터 제네바에서 작용하여 1536년 8월 7일 제네바는 독립하게 되었다. 용감한 제네바 시민들은 自由를 얻었고 종교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개신교를 받아들였다.

제네바의 종교 제도는 완전히 새로 조직해야 했다. 이 큰 일을 수행하기에 자기 힘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Farel은 1536년 7월 제네바를 지나가던 Calvin을 붙들고 도와주기를 간청한 Farel의 현명한 처사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Farel은 지극한 우정으로 시종 대했으며 Calvin도 그대 맺어진 우정을 한평생 간직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 불변하였다. Farel은 그후 칼빈의 그늘에서 중성하며 여생을 겸손하게 친구로 살았다. Farel은 1525년 교리개요, 1533년 禮文, 1550년에 신앙논쟁문, 1560년에 우상과 성골등의 책을 출판 하였으며 훌륭한 전도자요, 사상가라기 보다는 신념가로 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친구였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만 존중해 주는 Calvin의 귀중한 친구였다.

Calvin은 Geneva에서 착수한 일은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Farel의 친구로 협동자로 조용히 출발하였다. Farel이 그를 市議會에 소개했으나 명부에도 올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성바울 교회에서 성경강사로 일하며 Farel을 돕다가 1年後에야 인정받아 설교자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Farel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의 첫 공동사업은 베른의 시정부를

도와 방금 베른 지배하에 들어온 Vaud와 Lausanne 종교개혁을 유효하게 수행할이었다. 로잔에는 Pierre Viret (1511-71)가 목사 임명을 받아 1559년까지 일했는데 Calvin과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제네바 종교개혁에 큰힘이 되었다. Viret는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537년 개혁주의자 Farel의 감화를 받아 종교개혁자가 되고 1937년부터 Farel를 돕는자가 되었다. 그는 제네바, 로잔, 리옹지방에서 개혁교회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그의 저서는 기독교훈련 3권, 1564년 출판인데 칼빈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해설한 책이다. Viret과 Calvin은 동지요 친구가 되어 제네바 지방 종교개혁에 크게 협력한 공로자들이다. Calvin은 그를 소중한 친구로 대하였으며 깊은 우정으로 도와주었다.

Calvin과 Farel은 친구요 동지로, 제네바에서 세가지 일을 성취키로 약속했으며, 첫째는 1537년 1월 Calvin이 준비한 여러가지 중요한 제안을 市小協會에 제출했는데, 每月 성만찬식을 행할것. 市의 자구에 목사보좌원들을 약간명씩 파견하여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복사에게 보고하도록 할것.

이렇게 하여 제네바사를 보편 공동체로 만들려는 Calvin의 첫 시도인 동시에 교회의 독립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었다.

둘째는 칼빈이 준비한 교리문답을 채용할 것, 신도들에게 성경요리를 가르쳐서 개신교인들의 심령을 무장케 할것 (자주적 신앙을 가지게 하여 이단과 마귀를 이기게 하려는데 있으며 반석 같은 신앙으로 튼튼히 서게 하려는 것)

세째는 모든 시민에게 Farel이 작성한 신조(Creed)를 암송케 할 것이었다. 이상의 제안을 市小協會는 상당히 수정하여 채택했다.

Calvin과 Farel의 개혁은 성공일로에 있었다. 그런데 로잔의 Pierre Caroli가 Calvin과 Farel이 Arius 주의자라고 엉뚱한 비난을 퍼부었다. 중상 모략이었다. 두 친구는 정통임이 곧 증명 되었으나 이단선전이 많이 된 후였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 信經, 새 훈련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1538년 1월 시의회(200인)에서 성만찬은 아무에게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결의로 Calvin의 훈련제도를 폐지시켰다. Calvin과 Farel은 목사와 협의없이 시의회에서 그렇게 한것은 교회의 자유를 막탈한 것이라고 그 채택에 반대하였으므로 1538년 4월 23일에 추방되어 Geneva를 떠

났다. Calvin과 Farel은 우정만을 가슴에 간직하고 작별하였으며 Farel은 Neuchatel 교회 목사로 취임하여 여생을 그곳에 보냈으며 Calvin은 슈르타스북으로 피난했다. 그후 3년은 Calvin의 일생에 가장 행복된 시기였다. 목회자로, 신학선생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학구생활에 정진 또 정진 했다. 그 市에서도 Calvin을 크게 존경하였으며 찰스V세의 친구요 재결합을 위한 변론회에 그 市代表로 참석하여 거기서 Melancthon과 친구로 사귀게 되었고 其他 독일의 개혁자들과도 친교를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학문적으로 의견교환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 Calvin은 매우 보람을 느꼈다. Luther도 Calvin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해박한 학문을 크게 칭찬하였다고 전해진다.

1540년 결혼하여 生의 伴侶者도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강요 증보판 뿐만 아니라 로마서주석도 저술하여 개신교 一流 주석학자로 친구들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중에서도 더 훌륭한 것은 개혁주의를 일반적으로 가장 힘있게 변호한 반박문 Repry to Sadoleto를 저술 출판한 것이다.

그동안 Geneva에서는 Calvin의 친구들 내지 동조자들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 승리했는데 Calvin은 Geneva에는 무관심이였다. Geneva에서는 Calvin의 귀환을 간청했으나 그는 쉽게 통하지 않았다. 계속 간청하므로 자기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귀환하기로 수락하고 1541년 9월 13일 Geneva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승리의 입성을 하여 옛친구들과 만나 해후하는 개선자가 되었다. Calvin은 1537년 제정되었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성경적인 교회헌법 Ordonnances Ecclesiastiques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헌법에 명시하기를 “주께서 그 몸된 교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 4가지 교직을 두셨다”고 명문화 하고 그 책임을 정의했으며 그것이 오늘 장로교의 정치원리가 된 것이다.

Calvin과 그의 친구들이 높고 전진해야 될 가장 호된 투쟁은 1548—1555년 까지였다. 제네바 원주민들이 외국에서 피난온 개혁주의자들이 Calvin을 증시하여 단결해 원주민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압박할까봐 염려하던 때에서부터 의심의 눈으로 살폈으나 Calvin과 그를 친근히 하는 사람들이 전연 그같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안심하게 되었다. Calvin의 私心私慾 없는 인간성을 알게 되었으며 Calvin의 지위가 요지부동이 되기까지는 7年間이나 걸렸다. 그러므로 Calvin의 정직한

인간성 이 그들에게 인정받아 모든일에 순종케 되었으며 제네바는 새로워졌으며 잘 살게 되었다.

그중에 불행스럽게 호사다마적인 일이 있었다. 前欄에서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로마 천주교의 수도사였으며 그때 제네바 근처 Veigy에서 醫師 개업중이던 改宗者 Jerome Bolsec이 다시 변절자가 되어 Geneva人의 회중 앞에서 선동하며 Calvin을 중상 비난하는 도적이였다. Calvin의 예정설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대치되는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을 죄악과 타락의 책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으나 그때 제네바 시민들이 적은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큰소동이 일어났을 것인데 Calvin을 전적으로 신임했던 고로 Bolsec란 惡人으로 불리게 되었다. 1551년 10월 Bolsec은 추방되고 그는 로마천주교로 돌아가 Calvin을 중상하는 책자를 출판하여 계속 도전하였다. 그 여파인지 1553년 2월 총선거에서 Calvin 반대파들이 승리하여 Calvin 재 추방으로 기우러질때 Miguel Servetus (1511—1553)가 제네바에 나타나 Calvin에게 도전하러 하다가 오히려 돕는자가 되어버렸다. Calvin의 지위는 다시 鞏固해지고 재 추방 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승리자가 되게했다.

害者가 益者가 되어졌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요, 묘한 섭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Servetus는 血液순환을 발견한 의학자요 신학 철학에 능한 학자로 비상한 天才학자였다. 그는 1531년 三位一體論의 오류(error)를 논술하여 (De Trinitatis Erroribus) 출판하고 자기를 감추기 위해 Villeneuve로 이름을 改名하고 의학을 공부하여 프랑스 Vienne에서 개업의사로 성공했다. 그는 正體는 Guillaume Trie씨를 통해 탄로 났는데 그는 Calvin의 친구였다. 그가 잠려 죽게된 것은 Trie와 Calvin 때문이라고 Servetus 지지자들이 지적한다. Calvin은 Servetus에게 회개하고 三位一體否定을 취소하라고 간곡히 권했으나 그는 자기편이 이기고 Calvin이 추방 당할줄로 믿고 도리어 Calvin 추방을 제의했다가 오히려 그는 敗하고 Calvin은 승리자가 되었다.

바젤의 Sebastien Castellio (1515—1563)는 Calvin 신학자요 인문주의자이다. 그는 사보이 출신으로 1540년 슈르타스북에서 Calvin과 만나 친구가 되었으며 개신교인이 되었다. Calvin은 그와 친교를 맺고 친구로 대접하여 제네바 대학의 학장이 되도록 추천하여 취임하게 하였으므로 칼빈은 따뜻한 우정된 사람이었다.

Calvin은 아버지에게서 知識慾과 組織力을 받았고 어머니에게서 경건한 신앙을 물려 받았다. 아버지는 5형제중 둘째인 Calvin에게 큰 기대를 걸고 가장 좋은 교육의 혜택을 주었으며 名門家의 子弟들과 친구로 사귄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총명하여 대학생 班에서 의사표시가 탁월 정확하며 논리가 정연하여 교수들과 학우들의 鍾愛의 대상이 되었다. 학창에서 친구들을 매우 좋아 했으며 많은 친구들을 얻었다. 그중에 한사람 예를 든다면 후년에 성경을 佛譯한 Olivetan (1506—1538)이었다. 피차 사랑하는 친구였다. Calvin은 친구를 좋아했으며 친구가 많이 있었다.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친구를 매우 사랑했었다.<sup>24)</sup>

### III.多情한 열매를 後世에 남긴 Calvin

이같은 사실들은 여러사람들에게 경시 되어왔던고로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청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Calvin의 일생은 그때 그때마다 종교개혁자로 굳게 맺은 友情은 간혹 몇사람만이 例外로 變節, 背信한 사람이 있을뿐 오해도 풀고 고난도 감수하고 시련도 참아가면서 때를 기다리며 친구들을 보살렸었다. Calvin은 Geneva Academy를 세우고 신학과를 비롯해 여러과에, 가장 경건하고 학식이 높은 교수를 세워 가르치도록 했었다. 그후에 제네바대학이 되었고 루터파 외에 모든 개신교파의 가장 유력한 신학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프랑스, 네델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이탈리아 까지 목사들을 양성하여 보내는 본산이 되었다. 제네바대학은 개혁주의자와 교직자 양성소가 되어 개신교 발전의 源泉地가 되었다. Calvin의 신앙과 인격의 감화는 제네바 국경을 넘어 멀리 퍼져 나아갔다. 그의 기독교강요, 교회정치모범, 예배모범, 학교교육, 성경주석, 많은 서신거래 등은 프랑스, 네델란드, 스코틀랜드와 영국 등지에서 청교도(Puritans)의 신교사상을 형성 고무하여 그의 청교도 사상은 폴란드, 헝거리에 까지 침투되어 정신혁명에 크게 공헌하고 Calvin 生前에 독일 서남부에까지 정착되었다. Puritans와 함께 신대륙에까지 건너가 미국의 정신적 반석이 되었고 Calvin의 제도는 어떤 나라의 정부가 적대 행위에 직면해서도 굴한적이 없다. 불굴의 정

24) Paul Werule의 “친구로서의 칼빈” Johannes Calvins Lebeuswerk in Seinen Briefen. Vol. I Neukirchen Kreis Moers 1961.

신으로 힘차게 조직활동 할 수 있는 底力을 가졌으며 종교개혁이 낳은 唯一한 성경적 제도였다는 점을 역사는 증거해 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땅에 성취시키는데 불려 쓰시는 동역자로 택해 주셨다는 신념을 가지고 복음전선에 용감하며, 훌륭한 신앙 인격을 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올바른 행위와 진정한 예배지침을 성경에 가르쳐 주셨다고 굳게 믿는 유능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시켰다.

그의 「기독교강요」 최종판은 4권 80장으로 증보되었으며 제 1권은 하나님, 제 2권은 예수, 제 3권은 성령, 제 4권은 교회론이다. 그는 일년에 대설교 286회(佛語로), 講義는 186강좌(라틴어), 신학, 성경주석, 논쟁문, 교회규칙에 관한 집필을 계속했으며 서간집도 10권이 넘고 1564年 2月 16日 설교가 마지막이었으며 그해 5月 2日자 편지 쓴 것(옛 친구 Farel에게 보낸 것)이 마지막 편지이다. Farel은 친구 Calvin을 한번 더 보고자 달려왔었다. 1964年 5月 27日 저녁에 Beza의 팔에 안겨 Farel의 기도중 조용히 잠들었다.

최후에 그의 生涯의 총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끝맺는 유서 중<sup>25)</sup>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피조물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사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많은 失德과 失敗로 버려야 마땅할 종을 참으시고 불들어 주셨습니다. 不足한 것을 쓰시고 복음을 말려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열심도 부족하였고 약해서 태만한 것도 용납해 주신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만일에 내가 가진 것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었습니다만 복음을 위해 영광스럽게 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가지 가지의 은총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해 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sup>26)</sup>

믿음으로 끝맺은 人間 칼빈의 도습을 여러가지 面에서 대강 살펴 보았다. 그는 말은 일에 충성한 열정의 사람으로 후세에 찬란한 빛을 남긴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었다. (\*)

25) 이 유언은 Calvin이 제네바 市當局의 代表와 市牧師들에게, 1564年 4月 25日.

26) Bonnet II p.564 Calvin이 세상 떠난 후 1564 Beza가 쓴 찬사와 1565年 刊行된 Nicolas Colladou가 쓴 傳記 p.98—100.